

‘국가 근간’ 담긴 서문...법령 해석 기준·국민 통합 열쇠

오월, 모두의 정신으로 <1>헌법전문 의미와 역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본문 앞에 서문(序文)으로 개별 조항의 뿌리가 되는 전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역할은 바뀌지 않았다. 전문 속 역사적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다.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 속 내용이 일체다. 하지만 맥을 같이 하는 5·18민주화운동은 46주년을 맞도록 수록되지 못했다.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올해 5월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재조명된 오월 정신이 광주·전남을 넘어 전 국민적인 가치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본보는 헌법 전문의 의미와 역사, 필요성, 이후 변화 등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註

1948년 7월 ‘제헌헌법’...3·1 운동 명시
6월 항쟁 후 1987년 10월 現 헌법 공포
신군부 삭제 4·19 민주이념 다시 반영
12·3내란 계기 ‘오월정신’ 수록 재검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약 38년간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관련기사 2·3·4·7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이 시작이다.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의 뿌리를 명시했다.

본문과 별도로 있는 전문은 이념적 성격을 띠는데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01년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우리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계승해야 할 가치를 명문화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있다.

헌법 전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이뤄진 제9차 개헌의 결과물이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언론 검열 폐지 등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었던 개헌으로 전문에 4·19 민주이념이 다시 수록됐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으로 수록된 4·19 민주이념

은 1982년 제5차 개헌 때 최초로 헌법 전문에 반영됐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한 뒤 1980년 10월 제8차 개헌에서 제외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꺾기위해 시도였다.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4·19 민주이념이 다시 헌법 전문에 수록된 것은 국가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열사들이 흘린 피의 역사를 기억하며 9차 개헌 때부터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해 왔지만 보수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다시 동력을 확보했다. 내란 사태 극복의 원동력이 오월 정신이었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이 이에 올해 4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빛의 혁명’은 결국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정신의 연장선”이라며 “관련 기록물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5·18은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할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오월 정신이 반드시 헌



“이번엔 꼭 헌법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벽면에 헌법 전문 개정안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애리기자

법 전문에 수록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정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연상기자



‘7천피 시대’ 열렸다 단숨에 7,380선 안착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피 고지에 올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6936.00) 대비 447.57p(6.45%) 오른 7,384.56에 장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12면

지난 2월25일 역대 처음 6천선을 뚫은 지 2개월여(70일) 만에 사상 처음 7천선 고지를 밟았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 만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폭(447.57p)은 지난 3월5일 기록한 400.36p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천346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4일부터 2거래일간 6조원 이상을 폭풍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천724억원, 2조3천1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역대급 불장세를 이끈 주역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14.41%)는 장중 2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10.64%)도 장중 한때 16만4천만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575조6천억원으로 전장 대비 371조7천960억원 늘며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371조7천960억원)은 1일 증가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는 지난 3월5일 기록한 409조4천110억원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455.1원을 기록했다. /임채만기자·연합뉴스

李대통령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반대하나”

“정치권 이구동성 말했던 것 실천해야”

오늘 개헌안 표결 실용적 접근 주문

3대 선거 범칙 신속·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5·18 항쟁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엔 헌법 전문

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나”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2·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비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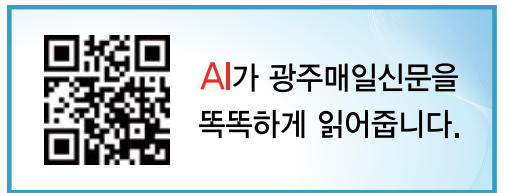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검찰·선관위 등을 향해 “소위 3대 선거 범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범칙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수기자

Today	
통합특별위원회 7월 개원 ‘산 넘어 산’	3면
남도인물·영조를 감동 시킨 ‘양득중’	14면
“경기 초반 실점 줄여야 상위권 진입”	16면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 승 환 대표이사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시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